

제1장 간지총론

此造以俗論之 干透三奇之美 支逢拱貴之榮 且又會局不沖 官星得用 主名利雙收
然庚申生于季春 水本休囚 原可用官 嫌其支會水局 則坎增其勢 而離失其滅 官星必傷
不足爲用 俗以强衆敵寡而用壬水 更嫌三奇透戊 根深奪食 亦難作用 甲木之財 本可借用
疎土衛水 洩傷生官 似乎有情 不知甲木退氣 戊土當權 難以疎通 縱用甲木 亦是假神
不過庸碌之人 況運走西南 甲木休囚之地 雖有祖業 亦一敗而盡 且不免刑妻剋子
孤苦不堪 以三奇拱貴等格論命而不看用神者 皆虛謬耳

壬	庚	戊	甲
午	申	辰	子
甲	癸	壬	辛
戊	酉	申	未
		午	巳

이 사주를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에 의하면 천간에는 삼기(三奇)가 투출되어 있고 지지에는 공귀(拱貴)를 만나며
또 합국(合局)으로 충하지 않고 있으니 관성을 용신으로 하여 명예와 재산운이 다 좋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신이 늦은 봄인 진월에 태어났고, 수가 본래 휴수라서 원래는 관성을 용신으로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지지가 삼합수국을 이루고 있어 수의 기세가 강하고 화가 위세를 잃게 되면 화인 관성이 손상을 입게 되어 용신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강하고 많은 것으로 작은 것을 대적하려고 임수를 용신으로 하려고 하니

삼기중의 무토가 투출되어 지지에 뿌리를 깊이 내려 식신을 박탈하고 있으니 이 역시 용신으로 하기 어렵다.

본래는 용신인 재성 갑목을 빌려 사용하여 토를 소통시키고 수를 보위하고, 상관을 설기시키고 관성을 생하여 주면 아주 유정한 것 같아 보이지만
갑목이 퇴기에 있고 무토가 월령에서 권세를 쥐고 있다보니 갑목이 토를 소통시킬 수가 없다.

가령 갑목을 용신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은 가짜 용신에 불과한 것이니 그저 범속한 인간에 불과하다.

거기다가 더욱 행운이 남서쪽으로 흐르고 있어 갑목이 휴수하니 비록 조상이 물려준 재산은 있었지만 모두 파산해 버리고 또한 처가 죽고
자식도 잃어 혼자 고독함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므로 삼기, 공귀 등의 격식으로 명을 논하고 용신을 논하지 않는 것은 모두 터무니없이 틀린 것이다.

제1장 간지총론

此造初看 一無可取 天干壬丙一剋 地支子午遙沖 且寒木喜陽 正遇水勢泛濫 火炁剋絕
似乎名利無成 余細推之 三水二土二火 水勢雖旺 喜無金 火本休囚 幸有土衛 謂兒能救母
況天干壬水生乙木 丙火生己土 各立門戶 相生有情 必無爭剋之意 地支雖北方
然喜己土原神透出 通根祿旺 互相庇護 其勢足以止水衛火 正謂有病得藥 且一陽後萬物懷胎
木火進氣 以傷官秀氣爲用 中年運走東南 用神生旺 必是甲第中人 交寅 火生木旺
連登甲榜 入翰苑 是以青雲直上 由此兩造觀之 配合干支之理 其可忽乎

壬	乙	己	丙		
午	丑	亥	子		
乙	甲	癸	壬	辛	庚
巳	辰	卯	寅	丑	子

이 사주를 언뜻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인다. 천간에는 임수와 병화가 상극하고 지지에는 자수와 오화가 멀리서 상충하고 있다.
그리고 차가운 나무는 양을 좋아하는데 물의 기세가 범람하여 화를 극하니 명예와 재산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보인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세 개의 수, 두 개의 토, 두 개의 화로 되어 있어 수의 기세가 비록 왕하지만 금이 없고,
화가 본래는 휴수지만 토가 있어 보위해 주고 있으니 이른바 이것은 아들이 어머니를 구제하는 격식으로 된다.

거기다가 천간에는 임수가 을목을 생하고 병화가 기토를 생하여 각각 파벌을 세워 상생하기가 유정하고 서로 다투어 극하려는 뜻이 없으며,
지지는 비록 북쪽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기토 원신이 천간에 투출되어 록에 뿌리를 내려 왕하여 서로가 보호해 주고 있으니
그 기세가 능히 수를 막아내고 화를 보위해 줄 수가 있다. 이것이 이른바 병에 걸렸는데 좋은 약을 얻었다라는 격식이다.

그리고 시절이 일양(一陽)이 지난 후라 만물이 잉태하는 때로서 목화가 진기하고 있으니 빼어난 상관을 용신으로 한다.

중년운이 동남쪽으로 들어서니 용신이 생을 받아 왕하게 되어 과거시험에 합격하고, 인목대운에는 화의 장생이고 목이 왕하니
연이어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한림원에 들어가 벼슬길에서 입신출세하였다.

이 두 개의 사주에서 볼 수 있듯이 천간지지의 배합의 이치를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地支

(원문)

生方怕動庫宜開 敗地逢沖子細推 支神只以沖爲重 刑與穿兮動不動

생방(生方)은 충동(沖動)을 두려워하나,
고장(庫藏)은 마땅히 충개(沖開)하여야 하고,
패지(敗地)가 봉충(逢沖)하면 자세하게 추리하여야 한다.

지신(支神)에는 다만 충(沖)이 중요하고,
형(刑)과 천(穿)에는 동(動)이 있고 부동(不動)이 있다.

임철초 증주

舊說云 金水能沖木火 木火不能沖金水 此論天干則可 論地支則不可
蓋地支之氣多不專 有他氣藏在內也

須看他氣乘權得勢 卽木火亦豈不能沖金水乎 生方怕動者 兩敗俱傷也
假如寅申逢沖 申中庚金 剋寅中甲木 寅中丙火 未嘗不剋申中庚金
申中壬水 剋寅中丙火 寅中戊土 未嘗不剋申中壬水 戰剋不靜故也
庫宜開者 然亦有宜不宜 詳在雜氣章中

敗地逢沖仔細推者 子午卯酉之專氣也 用金水則可沖 用木火則不可沖
然亦須活看 不可執一 倘用春夏之金水 則金水之氣休囚
木火之勢旺相 金水豈不反傷乎 宜參究之

제1강 간지총론

옛말에 金水는 木火를 충할 수 있으나 목화는 금수를 충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천간을 논할 때는 맞는 말이지만 지지를 논할 때는 그렇지 않다.

지지의 기운은 한가지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기운들이 그 안에 저장되어 있으니

반드시 그 기가 힘이 있고 기세가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본다면 어찌 목화가 금수를 충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인신사해인 생방(生方)이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상대가 모두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가령 인목과 신금이 서로 충한다고 할 때 신금 속에 있는 경금이 인목 속에 있는 갑목을 극하면

인목 속에 있는 병화가 신금 속에 있는 경금을 극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신금 속의 임수가 인목 속의 병화를 극하면 인목 속의 무토는 또 신금 속의 임수를 극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극하여 조용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한 것이다.

창고는 열어 주는 것이 좋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열어서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것도 있다.

상세한 것은 잡기장(雜氣章)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자오묘유인 패지(敗地)가 충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은 자오묘유의 기는 한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수(金水)가 용신일 때는 충해도 되지만 목화(木火)가 용신일 때는 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것도 융통성 있게 봐야 하지 고정 불변하게 봐서는 안 된다.

만약 봄이나 여름의 금수라고 하면 금수의 기가 휴수(休囚)하고 목화의 기세가 왕상하니

이때는 금수가 오히려 손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자세히 연구하여 판단해야 한다.

제1강 간지총론

秋水通源 金當令 水重重 木囚逢沖 不足爲用 火雖休而緊臨日支
況秋初餘氣未熄 用神必在巳火 巳亥逢沖 羣劫紛爭 所以連剋三妻 無子
兼之運走北方水地 以致破耗異常 至戊寅己卯
運轉東方 喜用合宜 得其溫飽 庚運制傷生劫 又逢酉年 喜用兩傷 不祿

癸	癸	壬	甲				
亥	巳	申	寅				
庚	己	戊	丁	丙	乙	甲	癸
辰	卯	寅	丑	子	亥	戌	酉

가을의 물이 원천에 통하고 금이 월령에 임하고 물이 많은데, 목이 휴수하고 충을 받고 있어 용신으로 할 수 없다.
화는 비록 휴수이나 일지에 있고 또 초가을이라 여기가 아직은 꺼지지 않고 있어 용신은 필히 사화가 된다.
그러나 사화 용신이 해수와 충하고 많은 겁재와 다투어 싸우니 연이어 처 셋을 극하고 자식도 없었다.
거기다가 행운까지 북방의 수로 진행되니 재산손실이 대단하였다.
그러다가 무인과 기묘운이 동쪽으로 접어들면서 희신과 용신이 모두 좋아져 입고 먹는 것이 좋았으나
경금운이 되어서는 상관을 극하고 겁재를 생하는데 거기다가 또 세운 유금을 만나게 되니
용신과 희신이 모두 손상을 받아 세상과 이별하고 말았다.

제1강 간지총론

甲寅日元 生于孟冬 寒木必須用火 柱中四逢旺水 傷用 無土砥定 似乎不美
妙在寅亥臨合 巳火絕處逢生 此即興發之機 然初運西方金地
有傷體用 碌碌風霜 奔馳未遇 四旬外 運轉南方火土之地
助起用神 棄印就財 財發數萬 娶妾 連生四子
由是觀之 印綬作用 逢財 爲禍不小 不用就財 發福最大

壬	甲	癸	癸		
申	寅	亥	巳		
丁	戊	己	庚	辛	壬
巳	午	未	申	酉	戌

갑인일주가 초겨울에 태어났으니 차가운 목은 반드시 화를 용신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사주에 수가 왕하여 용신이 손상되어 있지만 그것을 막아주는 토가 없어 아주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묘하게도 인목과 해수가 서로 합을 하여 사화가 절지에서 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곧 흥성해 살아날 계기가 된다.
초운에는 서쪽의 금운이 되어 체용을 손상하니 많은 풍상을 겪고 바쁘게 돌아다녔어도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나이 40세가 지나자 행운이 남쪽의 화토로 되어 용신을 도와주니
인성을 버리고 재성을 선택하여 수만의 재산을 벌고 첩을 두어 연이어 자식을 넷이나 얻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인성을 용신으로 하였을 때는 재성을 만나면 그 재화가 아주 크지만
그것을 버리고 재성을 용신으로 한다면 그 복이 가장 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강 간지총론

此傷官用印 喜神即是官星 非俗論土金傷官忌官星也

卯酉沖 則印綬無生助之神 子午沖 使傷官得以肆逞 地支金旺水生 木火沖剋已盡
天干火土虛脫 以致讀書未遂 碌碌經營 然喜水不透干 爲人文采風流 精於書法
更兼中運天干金水 未免有志難申 凡傷官佩印 喜用在木火者 忌見金水也

戊	戊	丁	辛	
午	子	酉	卯	
辛	壬	癸	甲	乙
卯	辰	巳	午	未
			申	

이 사주는 상관이 많아서 인성을 용신으로 하고 관성을 희신으로 하는데
일반사람들이 말하길 土金 상관에 관성은 기신이 아니라고 한다.

묘목과 유금이 서로 충하니 인성을 생하여 주지 못하고 자수와 오화가 서로 충하니 상관이 날뛰게 된다.
더구나 지지의 왕한 금이 수를 생하여 주니 목화가 충을 받아 모두 극을 당하여 천간의 화토가 허탈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공부를 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사업을 경영해도 장애가 많았다.
그런데 다행이 천간에 수가 투출되지 않아 문장을 잘 쓰고 풍류적인 인물이었고
서도에도 능숙하였지만 중년운의 천간에 금수가 오다보니 자신이 품은 뜻도 이루지 못했다.
무릇 상관이 인수를 지니는 상관패인격에서 용신과 희신이 목화라면 금수를 만나는 것은 좋지 않다.

제1강 간지총론

此造非支全四庫之美 所喜者辛金吐秀 丑中元神透出 洩其精英 更妙木火伏而不見
純清不混 至酉運 辛金得地 中鄉榜 後因運行南方 木火並旺 用神之辛金受傷 由舉
而進 而不能選

壬	戊	辛	辛		
戌	辰	丑	未		
乙	丙	丁	戊	己	庚
未	申	酉	戌	亥	子

이 사주는 지지에 진술축미가 모두 있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신금이 빼어난 기를 내 뿜고
축토속의 원신이 투출되어 그 정기를 설기하고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더욱 묘한 것은 목화가 잠복되어 나타나지 않아 순수하게 맑고 혼탁하지 않는 것이다.

유금운에 이르러 신금이 득지하여 향시에 합격하였지만 그후 행운이 남쪽으로 진행되니
목화가 모두 왕하여 용신인 신금이 손상을 받아 추천은 되었으나 선발은 되지 못하였다.

제1강 간지총론

此滿局印綬 土重金埋 壬水用神傷盡 未辰雖藏乙木無沖 或可借用
以待運來引出 乃被丑戌沖破 藏金暗相砍伐 以至剋妻無子
由此論之 四庫必要沖者 執一之論也
全在天干調劑得宜 更須用神有力 歲運輔助 庶無偏枯之病也

己	辛	壬	戊		
丑	未	戌	辰		
戊	丁	丙	乙	甲	癸
辰	卯	寅	丑	子	亥

이 사주는 인성이 많다보니 토가 두터워 금이 파묻히고 임수(壬水) 용신이 손상을 받고 있다.
미토와 진토에 비록 을목이 저장되어 있지만 서로 충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빌려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해 앞으로 행운에서 이끌어 내 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나아가 술토와 축토의 충으로 그곳에 저장된 금이 암암리에 진토와 축토에 저장된 목을 벌목하고 있으니
처가 죽고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볼 때 사고는 반드시 충해야 한다는 말은 편견이라고 하겠다.
모든 것은 천간이 잘 조절되어 있어야 하고 용신이 힘이 있어야 하며
또한 세운과 행운에서 도와준다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병은 없게 된다.

임철초 증주

地支逢沖 猶天干之相剋也 須視其強弱喜忌而論之 至於四庫之沖 亦有宜不宜 如三月之辰 乙木司令 逢戌沖 則戌中辛金 亦能傷乙木 六月之未 丁火司令 逢丑沖 則丑中癸水 亦能傷丁火 按三月之乙 六月之丁 雖屬退氣 若得司令 竟可爲用 沖則受傷 不足用矣 所謂墓庫逢沖則發者 後人之謬也

墓者 墳墓之意 庫者 木火金水收藏埋根之地 譬如得氣之墳 未有開動而發福者也

如木火金水之天干 地支無寅卯巳午申酉亥子之祿旺 全賴辰戌丑未之身庫通根

逢沖則微根拔盡 未有沖動而強旺者也 如不用司令 以土爲喜神 沖之有益無損 蓋土動則發生矣

刑之義無所取 如亥刑亥 辰刑辰 酉刑酉 午刑午 謂之自刑 本支見本支 自謂同氣 何以相刑 子刑卯 卯刑子 是謂相生 何以相刑 戌刑未 未刑丑 皆爲土氣 更不當刑 寅刑巳 亦是相生 寅申相刑 既沖何必再刑 又曰 子卯一刑也

寅巳申二刑也 丑戌未三刑也 故稱三刑 又有自刑 此皆俗謬 姑置之 穿 卽害也

六害由六合而來 沖我合神 故爲之害 如子合丑而未沖 丑合子而午沖之類 子未之害 無非相剋 丑午寅亥之害 乃是相生 何以爲害 且刑既不足爲憑 而害之義 尤爲穿鑿

總以論其生剋爲是 至于破之義 非害卽刑也 尤屬不經 削之可也

제1장 간지총론

지지가 서로 충한다고 하는 것은 천간에서는 상극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반드시 그 강약의 희기를 보고 논해야 한다.

또한 충하여 좋을 때가 있고 충하여 좋지 않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3월의 진토에 을목이 사령하였는데 술토와 충한다면 술토속의 신금이 을목을 손상할 수 있고,

6월의 미토에 정화가 사령하였는데 축토와 충을 한다면 축토속의 계수가 역시 정화를 손상할 수 있다.

이치적으로는 진월의 을목과 미월의 정화는 비록 되기이지만 만약 사령을 한다면 용신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충하면 손상을 입으니 용신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른바 “묘고(墓庫)끼리 충을 하면 더욱 흥성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후세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말이다.

묘라고 하는 것은 묘지라는 의미이고,

고라고 하는 것은 목, 화, 금, 수를 저장하고 이것들의 뿌리가 묻히는 곳이라는 의미다.

비유를 들자면 이것은 기를 얻어 놓은 묘지가 움직이면 마치 복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

천간의 목, 화, 금, 수가 지지의 인묘, 사오, 신유, 해자의 녹왕(祿旺)이 없다고 할 때는

오로지 진술축미 고에 뿌리를 의지하게 되는데 이것을 충한다면 연약한 뿌리가 모두 뽑혀버리는 것으로 된다.

그런데 이것이 충하면 움직여서 강하고 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사령한 것이 용신이 아니고 토가 희신이라고 할 때에 이것을 충하면 도움은 있을지라도 해로운 것이 없는데

이것은 토가 움직이면 같은 기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1강 간지총론

형(刑)이라고 하는 것은 취할 바가 없다.

예를 들어 해수가 해수를 형하고, 진토가 진토를 형하고,
오화가 오화를 형하고, 유금이 유금을 형하는 것을 자형(自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같은 기(氣)가 같은 기(氣)를 만났으니 마땅히 같은 기라고 해야 할 것이지 어찌 서로 형한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자수가 묘목을 형하고, 묘목이 자수를 형한다는 이것은 서로 상생관계인데 어찌 상형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술토가 미토를 형하고, 미토가 축토를 형한다는 이것은 모두 같은 기(氣)이니 더욱 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인목이 사화를 형한다는 것은 상생하는 것이고,
인목과 신금이 서로 형한다는 것은 서로 충하는 것이니 또 형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말하길 자묘(子卯)는 일형(一刑)이요, 인사신(寅巳申)은 이형(二刑)이요,
축술미(丑戌未)는 삼형(三刑)이요라는 이것 모두를 삼형(三刑)이라 하고,
이 외에 자형(自刑)이라는데 있다고 또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은 틀린 말이니 모두 버려야 한다.

제1강 간지총론

천(穿)이라고 하는 것은 해(害)를 말한다.

육해(六害)라고 하는 것은 육합(六合)에서 나온 말인데 나와 합하는 신(神)을 충한다고 하여 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예를 들어 자수와 축토가 합하는데 미토가 충하거나, 축토와 자수가 합하는데 오화가 충하는 것 등이다.

자수와 미토의 해라는 것은 사실상 상극관계가 되고,

축토와 오화 그리고 인목과 해수는 상생하는 관계인데 어찌 해가 된다고 할 수 있는가?

따라서 형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라는 의미도 더욱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항상 생극을 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파(破)한다고 하는 것은 해(害)가 아니면 형(刑)한다는 의미인데

이것 역시 황당무계한 말로 믿을 것이 없으니 아주 없애 버려도 된다.

제1강 간지총론

壬子日元 支逢兩刃 干透癸辛 五行無土 年干丙火臨絕 合辛化水 最喜卯旺提綱
洩其精英 能化刼刃之頑 秀氣流行 爲人恭而有禮 和而中節 至甲運
木之元神發露 科甲連登 午運 得卯木洩水生火 及乙未兩運 官至郡守 仕途平順
以俗論之 子卯爲無禮之刑 且傷官羊刃逢刑 必至傲慢無禮 凶惡多端矣

癸	壬	辛	丙		
卯	子	卯	子		
丁	丙	乙	甲	癸	壬
酉	申	未	午	巳	辰

일주가 임자인데 양인인 자수가 두 개 있고, 천간에 계수와 신금이 투출되어 있고,
오행에 토가 없고, 년간의 병화가 절지에 임하여 있는데 신금과 합하여 수로 화하고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묘목이 월령으로 왕하여 그 빼어난 기운을 설기하는 것인데
겁재 양인의 강한 것을 화하여 수기가 유행하니 아주 좋다.

그래서 사람됨이 공손하면서 예절을 갖추고 온화하고 절개를 지켰다.

갑목운에 목의 원신이 투출되어 과거시험에 연이어 합격하였고,
오화운에는 묘목이 수기를 설기하여 화를 생하고 나아가 을미운까지 군수에 올라 벼슬길이 평탄하였다.

이론에 의하면 자묘(子卯)가 무례한 형(刑)이고
또 상관과 양인이 형을 하고 있으니 반드시 오만하고 무례할 것이며 흉악한 일이 많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제1강 간지총론

庚辰日元 生于季夏 金進氣 土當權 喜其丁火司令 元神發露而爲用神
能制辛金之怯 未爲火之餘氣 辰乃木之餘氣 財官皆通根有氣
更妙亥水潤土養金而滋木 四柱無缺陷 運走東南 金水虛 木火爲實 一生無凶無險
辰運午年 財官印皆有生扶 中鄉榜 由琴堂而遷司馬 壽至丑運

丁	庚	乙	辛		
亥	辰	未	未		
己	庚	辛	壬	癸	甲
丑	寅	卯	辰	巳	午

경진 일월이 늦은 여름인 미월에 태어났는데 금이 진기(進氣)고 토가 월령이다.
기쁜 것은 정화가 사령이고 투출되어 있으니 용신으로 삼아 신금 겁재를 억제하고,
미토란 화의 여기이고, 진토란 목의 여기니 재성과 관성이 모두 통근하여 유기하다.
거기다가 해수가 토를 습하게 하여 금을 양성하고 목을 자라게 하니 사주에 결함이 없다.
행운이 동남쪽으로 향하니 금수가 허약하고 목화가 충실하여 일평생 흉한 것이 없고 재난도 없었다.
진토운 오화년에 재성, 관성, 인수 모두가 생을 받아 향시에 합격하였고,
벼슬은 금당에서 사마로 올랐고 축토운까지 살았다.

제1강 간지총론

此與前造大同小異 財官亦通根有氣 前則丁火司令 此則己土司令 更嫌丑時
丁火熄滅 則年干辛金肆逞 沖去未中木火微根 財官雖有若無 初運甲午 木火並旺
蔭庇有餘 一交癸巳 剋丁拱丑 傷劫並旺 刑喪破耗 壬辰運 妻子兩傷
家業蕩然無存 削髮爲僧 以俗論之 丑未沖開財官兩庫 名利兩全也

丁	庚	乙	辛		
丑	辰	未	丑		
己	庚	辛	壬	癸	甲
丑	寅	卯	辰	巳	午

이 사주는 앞 사주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재성과 관성 역시 통근하여 유기하다.
그런데 앞 사주는 정화가 사령인데 이 사주는 기토가 사령이 된다.
더 나쁜 것은 태어난 시간이 축시이고 보니 정화가 꺼지고 년간 신금이 날뛰어
미토중에 목화의 얇은 뿌리를 충하다 보니 재성과 관성이 있다고는 하나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초년운 갑오에서 목화가 모두 왕성하니 조상이 남겨준 음덕이 있었으나
계사운에 들어서자 정화를 극하고 축토와 합하여 상관과 겁재가 왕하니 고통이 대단하였고,
임진운에 아내와 아들이 죽고 가산이 하나도 없이 소멸되어 삭발하고 중이 되었다.
흔히 일반사람들이 논하는 대로한다면 축미(丑未)가 충하면 재성과 관성 두 개 고(庫)를 열어주니
명예와 재산운이 다 좋다고 해야 할 것이다.

地支

(원문)

暗沖暗會尤爲喜 彼沖我兮皆沖起 旺者沖衰衰者拔 衰神沖旺旺神發

암충(暗沖)과 암회(暗會)는 더욱 기쁜 것인데,

상대방이 나를 충(沖)하는 것은 모두 충기(沖起)이다.

왕신이 쇠신을 충하면 쇠신이 뿌리뽑히고, 쇠신이 왕신을 충하면 왕신이 발노한다.

임철초 증주

支中逢沖 固非美事 然八字缺陷者多 停勻者少 木火旺 金水必乏矣 金水旺 木火必乏矣
若旺而有餘者 沖去之 衰而不足者 會助之爲美 如四柱無沖會之神 得歲運暗來沖會 尤爲喜也
蓋有病得良劑以生也 然沖有彼我之分 會有去來之理 彼我者 不必分年時爲彼 日月爲我
亦不必分四柱爲我 歲運爲彼也 總之喜神是我 忌神爲彼可也
如喜神是午 逢子沖 是彼沖我 喜與寅戌會爲吉 喜神是子 逢午沖 是我沖彼 忌寅與戌會爲凶 如喜神是子
有申 得辰會而來之爲吉 喜神是亥 有未 得卯會而去之則凶 寧可我去沖彼
不可彼來沖我 我去沖彼 謂之沖起 彼來沖我 謂之不起 水火之沖會如此 餘可類推

제1장 간지총론

지지에서 충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팔자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많고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적다.

목화(木火)가 왕하면 금수(金水)가 반드시 적을 수밖에 없고, 금수가 왕하면 목화가 반드시 적을 수밖에 없다.

만약 왕하여 남는 것을 충하여 제거하고 쇠약하고 부족한 것을 합하거나 생해 준다면 좋다.

사주에 충과 합하는 것이 없을 경우는 행운이나 세운에서 암암리 충과 합을 해 준다면 더욱 좋은데 이는 병에 걸렸는데 좋은 약을 사용하면 치료가 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충에도 나와 상대의 구별이 있고, 합에도 가고 오는 이치가 있다.

상대와 나라고 하는 것은 년과 시를 상대라 하고 일과 월을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세운과 행운을 상대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희신을 나라고 하고 기신을 상대라고 한다.

예를 들어 희신이 오화인데 자수가 충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나를 충하는 것으로서 인목과 술토와 합하면 길하다.

희신이 자수인데 오화의 충을 받는다면 내가 상대를 충하는 것으로서 인목과 술토와 합하면 흉하다.

희신이 자수이고 신금이 있는데 진토가 와서 합하면 길하고, 희신이 해수이고 미토가 있는데 묘목이 와서 합하면 흉하다.

그러니 내가 상대를 충하는 것은 좋다고 할지언정 내가 상대에게 충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내가 가서 상대를 충하면 충하여 일으켜 세운다고 하고, 상대가 나를 충하게 되면 일으켜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

수화(水火)의 충과 합이 이렇다고 하면 나머지 오행의 충과 합도 이와 준해서 추리하면 된다.

제1강 간지총론

此造干透兩庚 正當秋令 支會火局 雖制殺有功 而剋洩並見 且庚金銳氣方盛
制之以威 不若化之以德 化之以德者 有益於日主也 制之以威者 洩日主之氣也
由此推之 不喜會火局也 反以火爲病矣 故子運辰年 大魁天下 子運沖破火局
去午之旺神也 引通庚金之性 益我日主之氣 辰年溼土 能洩火氣 拱我子水培日主之根源也

庚	甲	乙	庚		
午	寅	酉	戌		
辛	庚	己	戊	丁	丙
卯	寅	丑	子	亥	戌

이 사주를 보면 천간에 두 개의 경금이 투출되어 가을의 힘을 얻고 있고 지지는 화국을 이루고 있다.
비록 화가 경금칠살을 억제하는 공은 있지만 극하는 것과 설하는 것이 모두 다 있다.
그리고 경금은 이미 날카로운 기운이 왕성할 때이니 힘으로 억제하는 것보다 덕으로 화하는 것이 더 좋다.
덕으로 화하면 일주에게도 유익하고 힘으로 억제하면 도리어 일주의 기운을 설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화국을 이루는 것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병으로 되는 것이다.
자수운의 진토년에 세상에 이름을 떨쳤는데, 이것은 자수운이 화국을 충으로 파손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오화인 왕신을 제거하면서 경금의 기운을 설하여 일주의 기운을 도와주었고
진토년이라는 것은 습한 토로서 화기를 설기시킬 수 있고 자수와 합하여
일주의 뿌리를 더욱 견고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제1장 간지총론

丁火雖生季冬 此劫重重 癸水退氣 無力制劫 不足爲用 必以丑中辛金爲用
得丑土包藏 洩劫生財 爲輔用之喜神也 所嫌者 卯木生劫奪食爲病
以致早年妻子刑傷 初運壬子辛亥 暗沖巳午之火 蔭庇有餘 庚戌運 暗來拱合午火
刑傷破耗 至己酉會金局沖去卯木之病 財發十餘萬 由此觀之 暗沖其忌神
暗會其喜神 發福不淺 暗沖其喜神 暗會其忌神 爲禍非輕 暗沖暗會之理 其可忽乎

丙	丁	癸	丁		
午	卯	丑	巳		
丁	戊	己	庚	辛	壬
未	申	酉	戌	亥	子

정화가 늦은 겨울인 축월에 태어났지만 비겁이 상당히 많은 데다가 계수가 퇴기에 해당하여 겁재를 억제할 힘이 없으니 용신으로 삼기가 부족하여 반드시 축토 속에 들어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축토가 그것을 감싸주고 겁재를 설해서 재성을 생하여 주니 용신을 보호하는 희신이 된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것은 묘목이 겁재를 생하고 식신을 극하는 것이 병이다.

그러므로 일찍이 처자식을 잃었지만 초운 임자와 신해운에서 사오화를 암충하여 조상이 물려준 재산이 가득했으나,

경술운에서는 암암리에 오화 합하여 화국이 되어 상사와 재산손실을 보게되고,

기유운에서는 금국이 되어 묘목의 병을 충하여 제거하니 10여만의 재산을 벌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기신을 암충하고 희신과 암합하면 그 발복이 적지 않으나, 희신을 암충하고 기신과 암합하면

그 재앙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운에서 충하고 합하는 이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제1강 간지총론

丙火生於孟夏 地支兩寅一卯 巳火乘權 引出寅中丙火 天干雖逢庚辛 皆虛浮無根 初運壬午
癸未 無根之水 能洩金氣 地支午未南方 又助旺火 財之氣剋洩已盡 祖業雖豐 刑喪早見
甲運臨申 本無大患 因流年木火 又刑妻剋子 家計蕭條 一交申字 暗沖寅木之病 天干浮財通根
如枯苗得雨 渟然而興 及乙酉十五年 自創數倍于祖業 申運驛馬逢財 出外大利 經營得財十餘萬
丙戌運 丙子年 凶多吉少 得風疾不起 比肩爭財 乃臨絕地 子水不足以剋火 反生寅卯之木 故也

辛	丙	辛	庚		
卯	寅	巳	寅		
丁	丙	乙	甲	癸	壬
亥	戌	酉	申	未	午

병화가 초여름인 사월에 태어나고 지지에 두 개의 인목과 하나의 묘목이 있는데 사화가 월령을 잡은 상태에서
인목중의 병화가 투출이 되었으니 천간에 비록 경신금이 있다고 해도 모두 뿌리가 없이 허약하게 떠있다.
초년운 임오와 계미는 뿌리 없는 물이 능히 금의 기운을 설기하고, 지지 오화와 미토는 남방이라 왕성한 불을 도와주니
재성의 기운이 모두 극을 당하게 되어 조상이 물려준 유산은 풍성했지만 일찍이 상사가 있었다.
갑목운에 지지가 신금(申金)이라 본래는 큰 우환이 없는데 세운이 목화가 되는 바람에 또 처자식을 잃고 가문이 점점 쇠퇴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신금운으로 들어서자 인목인 병을 암충하면서 천간에 떠 있는 재성이 뿌리가 통하게 되니
마치 시들은 싹이 비를 만난 것처럼 갑자기 흥성해졌고 을유운까지 15년간 스스로 창업하여 조상이 물려준 재산보다 몇 배로 늘렸는데
이는 신금 역마가 재성을 만난 상황이라 외지로 나가 사업을 경영하여 십여 만의 많은 재산을 벌은 것이었다.
그러다가 병술운의 병자년은 흥이 많고 길함이 적었고 중풍으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 것은 비견이 재산을 다투어 싸우고
또한 재성이 절지에 임하다 보니 세운이 비록 자수였으나 화를 극할 수가 없고 도리어 인목과 묘목을 생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다.

干支總論

(원문)

陰陽順逆之說 洛書流行之用 其理信有之也 其法不可執一

음양순역지설(陰陽順逆之說)은 낙서(洛書)의 유행지용(流行之用)인데,
그 이치는 참으로 그러하나, 그 용법은 하나를 고집하고 변통을 몰라서는 아니 된다.

임철초 증주

陰陽順逆之說 其理出洛書 流行之用 不過陽主驟 以進爲退

陰主散 以退爲進 若論命理 則不專以順逆爲憑 須觀日主之衰旺 察生時之淺深 究四柱之用神

以論吉凶 則了然矣 至于長生沐浴等名 乃假借形容之辭也 長生者 猶人之初生也 沐浴者 猶人之初生而沐浴而去垢也

冠帶者 形氣漸長 猶人年長而冠帶也 臨官者 由長而旺 猶人之可以出仕也 帝旺者 壯盛之極 猶人之輔帝而大有爲也

衰者 盛極而衰物之初變也 病者 衰之甚也 死者 氣之盡而無餘也 墓者 造化有收藏 猶人之埋於土也

絕者 前之氣絕而後將續也 胎者 後之氣續而結胎也 養者 如人之養母腹也 自是而復長生 循環無端矣 人之日主不必生逢祿旺

卽月令休囚 而年日時中 得長生祿旺 便不爲弱 就使逢庫 亦爲有根 時說謂投墓而必沖者 俗書之謬也

古法只有四長生 從無子 午 卯 酉爲陰長生之說 水生木 申爲天關 亥爲天門 天一生水 卽生生不息 故木皆生在亥

木死午爲火旺之地 木至午發洩已盡 故木皆死在午 言木而餘可類推矣 夫五陽育于生方 盛于本方 弊于洩方 盡于剋方 于理爲順

五陰生于洩方 死于生方 于理爲背 卽曲爲之說 而子午之地 終無產金產木之道 寅亥之地 終無滅火滅木之道 古人取格

丁遇酉 以財論 乙遇午 己遇酉 辛遇子 癸遇卯 以食神洩氣論 俱不以生論 乙遇亥 癸遇申 以印論 俱不以死論

卽己遇寅歲之丙火 辛遇巳藏之戊土 亦以印論 不以死論 由此觀之 陰陽同生同死可知也

若執定陰陽順逆 而以陽生陰死 陰生陽死論命 則太謬矣 故知命章中 順逆之機須理會 正爲此也

제1장 간지총론

음양 순역(順逆)설은 그 이치가 낙서(洛書)에서 나온 것으로
유행의 응용이란 양(陽)은 주로 모으는 것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이고,
음(陰)은 주로 흩어지는 것으로 뒤로 물러서는 것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만약 명리를 논한다면 전문적으로 순역의 이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주의 쇠왕을 살피고
태어난 계절의 깊고 얕음이 어떤 상황인가를 살피고 사주의 용신을 살피고 나서 길하고 흉함을 논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그대로 정확하게 밝혀지는 것이다.

제1강 간지총론

그리고 장생(長生)이나 목욕(沐浴) 등의 명칭은 형용하는데 빌려 쓴 단어일 뿐이다.

장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처음 태어난 것을 비유한 것이고,

목욕이라는 것은 사람이 처음 태어나 목욕하여 때를 씻는 것이고,

관대(冠帶)라는 것은 형체와 기운이 점점 자라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모자를 쓰는 것이고,

임관(臨官)이라는 것은 왕성하게 성장하여 벼슬하는 것이고,

제왕(帝旺)이라는 것은 웅장하게 성장하여 황제를 돕고 큰 일을 하는 것이고,

쇠(衰)라는 것은 극에 도달하면 도리어 쇠약하게 되는 것으로 사물이 처음 변화함을 비유한 것이고,

병(病)이라는 것은 쇠약함이 극도에 이른 것이고, 사(死)라는 것은 기운이 다 없어진 것이고,

묘(墓)라는 것은 조화하여 거두어 저장하는 것으로 사람이 땅 밑에 묻히는 것을 비유한 것이고,

절(絶)이라는 것은 이전의 기(氣)가 다 없어지고 다시 앞으로 이어가는 것을 비유한 것이고,

태(胎)라는 것은 나중의 기가 계승하여 태를 이루는 것이고,

양(養)이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과 같다.

여기에서 또 다시 장생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이다.

제1장 간지총론

사람의 일주(日主)가 태어날 때 인성이나 비겁이 없더라도 또한 월령이 휴수가 되었더라도 년일시에 인성이나 비겁이 있다고 하면 쇠약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또한 진술축미(辰戌丑未)월에 있다고 하면 뿌리가 있는 것으로 된다. 보통 사람들의 학설에 의하면 묘에 들어간 것은 반드시 충하여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옛날 법에는 다만 네 개의 장생이 있었을 뿐 자오묘유(子午卯酉)를 음장생이라고 하는 말은 없었다.

수가 목을 생하는데 신금을 천관(天關)이라 하고

해수란 천문(天門)인 것으로 하늘에서 하나의 수(水)를 생하여 생하고 또 생하기를 끊임없이 하므로 목(木)은 모두 해수에서 생을 받는 것이고, 목이 화가 왕한 오화(午火)에서 사(死)가 된다는 것은 목이 오화에 오면 기운을 다 설하게 되므로 죽게 되는 것이다. 목의 상황이 이렇다면 나머지 오행도 이와 같다.

무릇 오양(五陽)이 생하는 곳에서 자라고 본방에서 왕성하다가 설하는 곳에서 넘어지고 극하는 곳에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부합되지만, 오음(五陰)이 설기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생하는 곳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논설이다. 그리고 자오(子午)에서 금(金)이 생하고 목(木)이 생하는 일은 끝내 없을 것이고, 인해(寅亥)에서 화(火)가 꺼지고 목(木)이 죽는 일은 끝내 없을 것이다.

제1강 간지총론

옛날 사람들이 격(格)을 논할 때 정화(丁火)가 유금(酉金)을 만난 것을 재성(財星)이라 논하였고,
을목(乙木)이 오화(午火)를 만난 것, 기토(己土)가 유금(酉金)을 만난 것,
신금(辛金)이 자수(子水)를 만난 것, 계수(癸水)가 묘목(卯木)을 만난 이러한 것 모두를
식신(食神)이 설기하는 것으로 논했을 뿐 생으로 논하지 않았다.

을목(乙木)이 해수(亥水)를 만난 것 계수(癸水)가 신금(申金)을 만난 것을 인성으로 논했을 뿐 죽는다고 논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토(己土)가 인목(寅木) 속의 병화(丙火)를 만난 것
신금(辛金)이 사화(巳火) 속의 무토(戊土)를 만난 것 역시 인성으로 논했을 뿐 죽는다고 논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음양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음양 순역만을 고집하여 양이 생하는 곳에서 음이 죽고,
음이 생하는 곳에서 양이 죽는다고 논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명장(知命章)에서 순역의 이치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의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1강 간지총론

此春水多木 過于洩氣 五行無金 全賴亥時比劫幫身 嫌其亥卯拱局 又透戊土
剋洩並見 交戊午運不壽 若據書云 癸水兩坐長生 時逢旺地 何以不壽
又云 食神有壽 妻多子 食神生旺勝財官 此名利兩全 多子有壽之格也
總以陰陽生死之說 不足憑也

癸	癸	乙	戊		
亥	卯	卯	午		
辛	庚	己	戊	丁	丙
酉	申	未	午	巳	辰

이 사주는 봄의 수로 목이 많아 설기(洩氣)가 너무 심하다.

오행에 금이 없어 오로지 시지(時支)의 해수인 겁재(劫財)에게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것은 해묘(亥卯)가 합하고 또 천간에 무토가 투출되어 극하고 설기함이 모두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무오운에 들어서자 수명이 다했던 것이다.

만약 여러 책의 논설에 의한다면 계수(癸水) 아래에 장생이 두 개 있고시(時)가 왕지이니 요절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식신이 있으면 장수하고 처자식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주는
식신이 생왕하여 재성과 관성을 이기므로 명예와 재물을 모두 얻고 자식도 많고 장수하는 격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종합적으로 말해서 음양생사(陰陽生死)설은 하여튼 믿을게 못 된다.

干支總論

(원문)

故天地順遂而精粹者昌 天地乖悖而混亂者亡 不論有根無根 俱要天覆地載

고로 천지가 순수(順遂)하고 정수(精粹)한 자는 창성하고,

천지가 괴패(乖悖)하고 혼란(混亂)한 자는 망하는데,

유근무근(有根無根)을 논하지 않고, 모두 천복지재(天覆地載)가 필요하다.

임철초 증주

取用干支之法 干以載之支爲切 支以覆之干爲切
如喜甲乙而載以寅卯亥子則生旺 載以申酉則剋敗矣
忌丙丁載以亥子則制伏 載以巳午寅卯則肆逞矣
如喜寅卯而覆以甲乙壬癸則生旺 覆以庚辛則劫敗矣
忌巳午而覆以壬癸則制伏 覆以丙丁甲乙則肆逞矣 不特此也
干通於支 支逢生扶 則干之根堅 支逢
剋 則干之根拔矣 支受蔭於干 干逢生扶 則支之蔭盛
干逢剋制 則支之蔭衰矣 凡命中四柱干支
有顯然吉神而不爲吉 確乎凶神而不爲凶者 皆是故也
所以無論天干一氣 地支雙清 總要天覆地載

제1장 간지총론

干支의 法에서 용신을 취할 경우 天干에 있을 적에는 지지에서 친절하게 실어주는 것이 좋고,
용신이 지지에 있을 적에는 천간에서 친절하게 덮어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甲乙木이 용신일 경우 지지에 寅卯亥子가 있으면 生旺하게 되고 좋다고 하겠으나
申酉金이 있다면 깨어지고 시들게 된다.

또 丙丁火는 지지에 亥子水가 있어서 制服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巳午寅卯를 만나면 旺盛해서 날뛰는 것이다.

또 용신이 寅卯에 있을 경우에는 天干에 甲乙壬癸가 있으면 生旺해지지만 庚辛이 있다면 겁탈을 당한다.
巳午에 용신이 있다면 천간에 壬癸가 있을 때 제어를 당할 것이고 丙丁甲乙이 있다면 힘을 얻어서 날뛰게 될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천간이 지지에 통하여 지지가 천간의 生扶가 되어준다면 천간의 뿌리가 견고한 것이다.

그러나 지지에서 沖을 만난다면 즉 천간의 뿌리가 뽑히게 된다.

그리고 지지도 천간에서 그늘로 덮어준다면 生扶를 만나서 뿌리가 무성해질 것이지만
天干에서 剋制를 하게 되면 그늘이 말라버릴 것이다.

무릇 팔자 가운데에서 吉神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는데도 실제로는 별로 좋은 것이 없고,
凶神이 틀림없다고 장담을 했는데 실제로는凶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이러한 사연이 숨어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 天干이 모두 한 가지 氣運으로 되어있다든지(天全一氣)

地支가 모두 淸하다(地支雙淸)는 식의 말보다는

오로지 ‘하늘에서는 덮어주고 땅에서는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제1강 간지총론

庚金雖生春令 支坐祿旺 時逢印比 足以用官 官坐財鄉 地支載以卯木財星
又得亥水生扶有情 丁火之根愈固 所謂天地順遂而精粹者昌也 歲運逢壬癸亥子
干有己印衛官 支得卯財化傷 生平履險如夷 少年科甲 仕至封疆
經云 日主最宜健旺 用神不可損傷 信斯言也

庚	庚	丁	己				
辰	申	卯	亥				
己	庚	辛	壬	癸	甲	乙	丙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庚金이 비록 봄에 태어났지만 日支에서 힘을 얻고 時柱에 印星과 比肩을 만났으니 身强하다.
官星을 用神으로 삼기에 족하다. 그리고 官星은 다시 財星 卯木에 앉아 있다.
또 亥水の 生扶를 얻은 財星은 다시 有情하게 되니 丁火의 뿌리는 더욱 견고해진다.
이른바 ‘天地가 서로 따르니 순수하여 昌盛하게 되리라’는 구조이다.

歲運에서 壬癸亥子를 만나더라도 天干에서 己土의 印星이 막아주게 되어 官을 보호하게 된다.
地支에서도 卯木이 食神을 化하게 되니 평생 어려운 일 없었다. 일찍이 벼슬하여 지위는 봉강까지 이르렀다.
經에 말하기를 ‘日主는 建旺한 것이 가장 좋고, 用神은 손상을 받으면 불가하다’고 했는데, 믿을만한 말이다.

제1강 간지총론

此亦以丁火官星爲用 地支亦載以卯木財星 與前造大同小異 只爲卯酉逢
剋敗丁火之根 支中少水 財星有剋無生 雖時逢甲木 臨於申支 謂地支不載
雖有若無 故身出舊家 詩書不繼 破耗刑傷 一交戌運 支類西方 貧乏不堪

甲	庚	丁	己				
辰	申	卯	酉				
己	庚	辛	壬	癸	甲	乙	丙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이 사주 역시 관성 丁火로 용신을 삼는다. 지지에도 卯木 재성이 있다. 앞의 사주와 대체로 같다고 보겠다.

다만 卯酉 沖을 만났다. 그래서 丁火의 뿌리가 깨졌다.

그리고 地支에 水도 적어서 財星인 卯木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있다.

비록 時干에 甲木이 있다고 하지만 申에 앉아 있으니 地支에서 실어주지 않는 형상이다.

비록 있다고는 해도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기는 하지만 글공부를 계속하지 못하고 온갖 풍상을 겪다가
戌土運으로 바뀌자 地支에 西方의 金局이 형성되면서 가난의 고통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제1강 간지총론

庚辛壬癸 金水雙清 地支申酉巳午 煉有功 謂午火眞神得用 理應名利雙輝
所惜者五行無木 金雖失令而黨多 火雖當令而無輔 更嫌壬癸覆之 緊貼庚辛之生
而申中又得長生 則壬水愈肆逞矣 雖有巳火助午 無如巳酉拱金 則午火之勢必孤 所以申酉兩運
破耗異常 丙戌運中 助起用神 大得際遇 一交亥運 壬水得祿 癸水臨旺 火氣剋盡 家破身亡

癸	辛	壬	庚
巳	酉	午	申
己	戊	丁	丙
乙	甲	癸	未
丑	子	亥	戌

天干에 庚辛壬癸이니 金水雙清이라 하겠다. 地支에 申酉巳午가 있으니 金을 단련시키는 공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월령을 잡은 午火를 용신으로 삼게 되니 이치로 본다면 명예와 재물을 얻을 것이다.
아까운 것은 木이 없다는 것이다. 金이 비록 실령을 했다고는 하지만 세력이 뭉쳐서 상당히 강하고,
火는 비록 당령을 했다지만 보조가 없는 꼴이다. 다시 싫은 것은 壬癸水가 천간에 바짝 붙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庚辛金이 壬癸水를 생조하고 庚辛金이 시지에서는 長生도 얻었다. 즉 壬水는 더욱 날뛰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비록 巳火가 돕는다고는 하지만 巳酉의 합이 있으니 午火의 세력은 매우 허약해진 모습이다.
그래서 申酉運에서는 애로가 너무 많았고, 丙戌운에는 용신을 도와서 일어나니 좋은 인연을 만났는데,
亥水운으로 바뀌자 壬水가 뿌리를 얻고 癸水도 旺地에 임하니 火氣는 그대로 다해서 집이 망하고 자신도 죽고 말았다.

제1강 간지총론

此亦用午中丁火之殺 壬水亦覆之於上 亦有庚辛金緊貼之生 所喜者午時一助
更妙天干覆以甲木 則火之蔭盛 且壬水見甲木而貪生
不來敵火 四柱有相生誼 無爭剋之風 中鄉榜 仕至觀察
與前造只換得先後一時 天淵之隔 所謂毫釐千里之差也

甲	辛	壬	庚			
午	酉	午	申			
己	戊	丁	丙	乙	甲	癸
丑	子	亥	戌	酉	申	未

이 사주 역시 官殺인 午中 丁火를 용신으로 삼는데, 앞 사주와 마찬가지로 壬水가 덮고 있다.

그리고 천간에서도 역시 庚辛金이 바짝 붙어서 생조한다.

그래도 반가운 것은 午時에 태어나서 午火가 도와준다는 것이다.

다시 묘한 것은 시지의 午火에는 甲木이 덮여있다는 것이다. 즉 불이 木에 의지해서 왕성해진다는 이야기이다.

또 壬水는 甲木을 보면서 生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서 火를 剋하러 오지 않는다는 점도 길하다.

사주에 상생의 흐름이 발생하게 되어 싸우는 형상이 없게 된다.

향방에 올라서 관찰사가 되었으니 앞의 사주와 다만 앞뒤로 한 시간의 차이일 뿐인데

털끝 같은 차이가 이렇게 천리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干支總論

(원문)

天全一氣 不可使地德莫之載 地全三物 不可使天道莫之容

천전일기(天全一氣)라도 지덕(地德)이 실어주지 않으면 아니 되고,
지전삼물(支全三物)이라도 천도(天道)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니 된다.

임철초 증주

天全一氣者 天干四甲 四乙 四丙 四丁 四戊 四己 四庚 四辛 四壬 四癸 皆是也
地支不載者 地支與天干無生化也 非特四甲 四乙而遇申酉寅卯爲不載 卽全受剋于地支
或反剋地支 或天干不顧地支 或地支不顧天干 皆爲不載也 如四乙酉者 受剋于地支也
四辛卯者 反剋地支也 必須地支之氣上升 天干之氣下降 則流通生化 而不至於偏枯
又得歲運安頓 非當亦貴矣 如無升降之情 反有沖剋之勢 皆爲偏枯而貧賤矣 宜細究之

제1강 간지총론

天干이 하나의 氣로 되어 있다는 것은 천간이 네 개의 甲木, 네 개의 乙木, 네 개의 丙火, 네 개의 丁火, 네 개의 戊土, 네 개의 己土, 네 개의 庚金, 네 개의 辛金, 네 개의 壬水, 네 개의 癸水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지지에서 받들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지지가 천간과 生化하는 관계가 없는 것을 말한다.

특별히 네 개의 甲木이나 네 개의 乙木이 申酉寅卯인것만 지지가 받들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천간 모두가 지지의 극을 받거나 혹은 도리어 지지를 극하거나 혹은 천간이 지지를 돌보지 않거나 혹은 지지가 천간을 돌보지 않는 것 등은 모두 지지가 받들어 주지 않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네 개의 乙酉라고 하는 사주가 있다면 모두 지지의 극을 받는 것이고,

네 개의 辛卯는 도리어 모두 지지를 극하는 것이다.

반드시 지지의 기운은 상승하고 천간의 기운은 하강해야 유통되고 生化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거기다가 세운과 행운까지 배합이 잘 되어 있다면 부자가 되지 않으면 꼭 귀하게라도 된다.

만약 상승하고 하강하는 정이 없고 도리어 충하고 극한다면 이것은 모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으로 가난하지 않으면 비천하게 될 것이니 여기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해야 한다

제1강 간지총론

年支申金 沖去日主寅木 加以戌土乘權重見 生金助殺 謂地支不顧天干
夫四甲一寅 似乎强旺 第秋木休囚 沖去祿神 其根已拔 不作旺論 故寅卯亥子運中
衣食頗豐 一交庚辰 殺之元神透出 四子俱傷 破家不祿 干多不如支重 理固然也

甲	甲	甲	甲		
戌	寅	戌	申		
庚	己	戊	丁	丙	乙
辰	卯	寅	丑	子	亥

年支의 申金이 日支의 寅木을 충하고 있는데 추가로 월령에 있는 戌土가 상당한 힘으로
金을 생하여 殺을 도와주고 있으니 이러한 것을 地支가 天干을 보살펴주지 않는다고 하겠다.

甲木이 네 개에 寅木이 하나 있으니 보기에는 강하고 왕한 것 같지만
가을의 木은 휴수이고 또 충으로 그 뿌리가 이미 뽑혔으니 강하다고 논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寅卯亥子의 운에서는 의식이 풍성했지만
庚辰운에 들어서자 殺의 원신이 투출되어 아들 넷이 모두 죽고 가문이 파산되고 자신도 죽고 말았다.
그러니 천간에 많이 있는 것이 지지가 왕한 것 보다 못하다는 이치는 참으로 합당하다고 해야 하겠다.

제1강 간지총론

此滿局火土 子衰午旺 沖則午發而愈烈 熬乾滴水 是謂天干不覆 初交己未
孤苦萬狀 至庚申 辛酉運 引通戊土之性 大得際遇 娶妻生子 立業成家
一交壬戌 水不通根 暗拱火局 遭祝融之變 一家五口皆亡
如天干透一庚辛 或地支藏一申酉 豈至若是之結局乎

戊	戊	戊	戊		
午	戌	午	子		
甲	癸	壬	辛	庚	己
子	亥	戌	酉	申	未

이 사주는 모두 火土로 되어 있는데 子水는 쇠약하고 午火가 왕하니

子水가 충하면 午火가 더욱 맹렬해지게 되어 한 방울의 물을 증발시켜버리게 한다.

이것이 이른바 천간이 덮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처음의 己未운에서는 온갖 고생이 많았으나 庚申, 辛酉운에 들어서서는 戊土의 기운을 유통시켜주니

매우 좋은 기회를 만나 결혼하여 아들도 낳았고, 사업도 성공을 해서 가문을 세웠다.

壬戌운으로 바뀌면서 水가 통근을 하지 못하고 또 戌土가 암암리에 火局을 이루게 되니

큰 화재를 당해서 다섯 식구가 모두 불에 타서 죽고 말았다.

만약 천간에 庚辛金이 하나라도 투출되었거나

혹은 지지에 申酉金이 하나라도 있었더라면 이러한 결말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제1강 간지총론

此與前造祇換一申字 而天干之氣下降 地支之水有源 午火雖烈 究不能傷申金
用金明矣 況有子水爲去病之喜神 交申運 戊辰年四月入學 九月登科
蓋得太歲辰字 暗會水局之妙
惜將來壬戌運中 天干羣比爭財 地支暗會火局 未見其吉矣

戊	戊	戊	戊		
午	子	午	申		
甲	癸	壬	辛	庚	己
子	亥	戌	酉	申	未

이 사주는 앞 사주와 비교해서 申金 하나만 바뀌었을 뿐이다.
여기에서는 천간의 기운은 하강을 하고 있고 지지의 水에게는 근원이 있어 午火가 비록 맹렬하다고는 하지만
연구해보면 申金을 손상할 수 없으니 金을 用神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물며 子水가 있어 病을 제거하는 희신으로 되고 있다.
그리하여 申金운의 戊辰년 四月에 입학해서 九月에 과거시험에 합격하였다.
이것은 세운의 辰土가 암암리에 水局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앞으로 壬戌운에 가서 천간의 비견들이 財星을 쟁탈하게 되고
지지에는 암암리에 火局을 이루게 되니 아마도 길함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제1강 간지총론

此造四木當權 四金臨絕 雖日反剋地支 實無力剋也 如果能剋 可用財矣
若能用財 豈無成立乎 彼出母腹 數年間父母皆亡 與道士爲徒
己丑戊子運 印綬生扶 衣食無虧
一交丁亥 生木剋金 卽亡其師 所有微業 嫖賭掃盡而死

辛	辛	辛	辛		
卯	卯	卯	卯		
乙	丙	丁	戊	己	庚
酉	戌	亥	子	丑	寅

이 사주는 네 개의 木이 힘이 있고 네 개의 金은 약하니
말로는 천간이 地支를 극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극할 힘이 없다.

만약 극할 수 있다고 하면 財星을 用神으로 삼게 되는데

만일 財星을 用神으로 삼는다면 자신의 뜻대로 성공하지 않을 리가 없다.

이 사람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후 몇 연도 안 되는 사이에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한 도사를 따라가 제자가 되었다.

己丑운과 戊子운에 인수가 생하여 도와주니 의식에는 모자라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丁亥운으로 바뀌자 木을 생하고 金을 극하게 되자 그 스승이 사망하고

조금 남아 있던 모든 재물을 도박과 주색으로 모두 날려버리고 죽고 말았다.

제1장 간지총론

地支三物者 支得寅卯辰 巳午未 申酉戌 亥子丑之方是也 如寅卯辰日主是木 要天干火多 日主是火 要天干金旺 日主是金 要天干土重 大凡支全三物 其勢旺盛 如旺神在提綱 天干必須順其氣勢 洩之可也 如旺神在別支 天干制之有力 制之可也 何以旺神在提綱 只宜洩而不宜制 夫旺神在提綱者 必制神之絕地也 如強制之 不得其性 及激而肆逞矣 旺神者 木方提綱得寅卯是也 制神者 庚辛金也 寅卯乃庚辛之絕地也 如辰在提綱 四柱干支 又有庚辛之助 方可制矣 所謂循其氣序 調劑得宜 斯爲全美 木方如此餘可例推

지지의 세 가지 물건이라는 것은 地支에 寅卯辰, 巳午未, 申酉戌, 亥子丑, 方局을 말한다.

예를 들어 寅卯辰에 일주가 木이면 천간에 火가 많아야 하고, 일주가 火이면 천간에 金이 많아야 하고, 일주가 金이면 천간에 土가 많아야 한다. 대체로 지지에 세 가지가 모여 있다면 그 기세가 상당히 강력하다.

만약 그 중에 왕한 것이 월령이라면 천간은 반드시 그 기세에 따라 설기하여 주어야 하며,

왕한 것이 다른 지지에 있을 때 천간이 억제하는 힘이 크다고 하면 억제하여 주면 된다.

왜 왕한 것이 월령에 있을 때는 그것을 洩氣해 주고 억제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대저 월령에 왕한 것이 있다는 것은 그 왕한 것을 억제하는 글자는 필히 절지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강제로 억제한다면 제어도 되지 않을뿐더러 도리어 자극을 받아서 미쳐 날뛰게 되기 때문이다.

旺神이라고 하는 것은 木方에서 월령이 寅卯木이 되는데, 이때에 그것을 극하는 것이 庚辛金지만 寅卯月에 庚辛金은 절지가 된다.

그런데 만일 월령이 辰土인데 사주의 천간 지지에서 또 庚辛金을 도와주고 있다면 이때는 木을 극할 수 있다.

이른바 기세에 따라 잘 조절되면 모두가 다 옳바르다고 할 것이다. 木方이 이렇다면 나머지 오행의 方局도 이와 같이 논한다.

제1강 간지총론

此寅卯辰東方 兼之寅時 旺之極矣 年月兩金臨絕 旺神在提綱 休金難剋
而且丙火透時 木火同心 謂強衆而敵寡 勢在去庚辛之寡
早行土運生金 破耗異常 進京入部辦事 至丙戌運
分發廣東 得軍功 升知縣 喜其剋盡庚辛之美 至酉 庚辛得地 不祿宜矣

丙	甲	庚	辛		
寅	辰	寅	卯		
甲	乙	丙	丁	戊	己
申	酉	戌	亥	子	丑

이 사주는 지지에 寅卯辰으로 東方이고 더구나 時地까지 寅木이라 매우 旺하다.

년과 월의 두 金은 절지에 앉아 있고 왕한 것이 월령이다 보니 기운이 빠진 金이 木을 극할 수가 없다.

그런데 丙火가 시간에 투출되어 있어 木火의 마음이 서로 같으니

이른바 강하고 많은 것이 적은 것을 극하는 것으로 되니 자연히 그 적은 庚辛金을 극해야 한다.

초년운이 土가 되어 金을 생하니 재산손실이 대단히 많았고, 서울에 가서 部에 들어가 일했다.

丙戌운에 廣東으로 배치되어 군에서 공을 세워 知縣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은 庚辛金을 모두 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酉金운이 되자 庚辛이 득지하게 되니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제1강 간지총론

此亦寅卯辰東方 旺神不是提綱 辰土歸垣 庚金得載力量足以剋木
丁火雖透 非庚金之敵 用殺明矣

至甲申運 庚金祿旺暗沖寅木 科甲聯登 仕至郡守 一交丙運制殺 降職歸田

丁	甲	庚	庚		
卯	寅	辰	寅		
丙	乙	甲	癸	壬	辛
戌	酉	申	未	午	巳

이 사주 역시 지지가 寅卯辰 東方이지만 왕한 것이 월에 있는 것이 아니고 辰土가 월령인데
庚金이 월령의 진토에게 힘을 받으니 木을 제어하기에 힘이 충분하다.

丁火가 비록 투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庚金을 극할 수가 없으니
庚金 偏官을 용신으로 삼는 것이 뚜렷하다.

甲申운에 이르러 庚金이 녹왕을 만나 寅木을 충하게 되어
과거시험에 연이어 합격하여 벼슬이 군수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丙火운에 들어서자 食神이 殺인 庚金을 극하는 바람에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原文】 天合地者 地旺喜靜

천간이 지지와 합할 때에는 지지가 왕하고 안정되어 있는 것이 좋다.

【原注】 如丁亥戊子甲午己亥辛巳壬午癸巳之類 皆支中人元

與天干相合者 此乃坐下財官之地 財官若旺 則宜靜不宜沖

예를 들어 정해, 무자, 갑오, 기해, 신사, 임오, 계사 등이 이러한데,

모두가 지지중의 인원이 천간과 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재성과 관성 위에 앉자 있다는 것인데

만약 재성이나 관성이 왕하다면 조용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고 충하면 좋지 않다.

임철초 증주

十干之合 乃陰陽相配者也 五陽合五陰爲財 五陰合五陽爲官 所以必合 尙有陰旺不從陽 陽旺不從陰 雖合不化 有爭合妒合分合之別 若露干合支中暗干 則隨局無所不合 無所不分爭妒忌矣 此節本有至理 只因原注少變通耳 天合地三字 須活看輕看 重在下句地旺喜靜四字 夫地旺者 天必衰也 喜靜者 四支無沖剋之物 有生助之神也 天干衰而無助 地支旺而有生 天干必懷忻合之意 若得地支元神透出 緣上天下地 升降有情 此合似從之意也 合財似從財 合官似從官 非十干合化之理也 所以靜則居安 尙堪保守 動則履危 難以支持 然可言合者 只有戊子辛巳丁亥 壬午四日耳 若甲午日 則午必先丁而候己 己土豈能專權而合甲 己亥日 亥必先壬而後甲 甲豈能出而合己 癸巳日 巳必先丙而後戊 戊豈能越佔而合癸 此三日不論 至於十干 應合而化 則爲化格 另有作用 解在化格章中

제1강 간지총론

십간의 합에는 음양이 서로 배합되어 있다.

다섯 개의 양간은 모두 다섯 개의 음간인 재성과 합하고, 다섯 개의 음간은 다섯 개의 양간인 관성과 합한다.

이렇게 해서 둘이 서로 만나면 반드시 합이 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음이 왕해도 양을 따르지 않고,

양이 왕해도 음을 따르지 않으며, 비록 합을 해도 화하지 않거나

오히려 서로 다투어 합하거나 질투하여 합하는 등 구별이 있다.

만약 투출되어 있는 천간이 지지 속의 지장간과 합한다고 한다면

사주마다 합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다투고 질투하고 나쁘지 않은 것이 없게 된다.

이 장은 본래 지극한 이치가 있으나 다만 원주(原注 : 유백온의 주)가 요령이 모자랄 뿐이다.

천간과 지지가 합한다(天合地)라고 하는 이 세 글자는 반드시 잘 살펴봐야 하겠지만

또한 그리 중요하게 볼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지지가 왕하고 안정되어 있는 것이 좋다(地旺宜靜)의 네 글자는 잘 살펴야 한다.

무릇 지지가 왕하면 반드시 천간이 쇠약하기 마련이다.

조용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네 개 지지를 충하거나 극하는 것이 없고 생하여 도와주는 것이 있음을 말한다.

천간의 기운이 쇠약한데 도와주는 것이 없고,
지지가 왕한데 생하여 주는 것이 있다면 천간은 반드시 은근히 합할 뜻을 품게 된다.
그리고 만약 지지의 원신이 투출되었다면 천간과 지지가 서로 인연이 되어 상승과 하강하여
유정하게 되니 이 합은 따라가는 뜻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재성과 합하면 재성에 따르고, 관성과 합하면 관성에 따르는 이것은
열 개의 천간이 합하고 화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조용하면 편안하여 안정적이고 움직이면 위험을 당하니 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합이라고 할만한 것은 오직 무자(戊子), 신사(辛巳), 정해(丁亥), 임오(壬午)의 네 개의 간지뿐이다.

만약 갑오일이라고 할 때 오화에는 정화가 먼저고 그 다음은 기토가 되는데
기토가 어찌 마음놓고 갑목과 합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기해일의 해수에는 반드시 임수가 먼저고 그 다음이 갑목인데
갑목이 어찌 튀어나와서 기토와 합할 수 있단 말인가?

또 계사일의 경우에는 사화의 병화가 먼저고 그 다음이 무토인데
어찌 무토가 튀어나와서 계수와 합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이 세 개의 일은 간지합에 속하지 않는다.

그 외에 열 개의 천간을 말할 때 마땅히 합하여 화하는 것은 화격(化格)으로 논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또 다른 작용이 있으니 이것에 관해서는 화격장(化格章)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제1강 간지총론

支類南方 乘權當令 地旺極矣 火炎土燥 脆金難滋水源 天衰極矣 故日干之情
不在辛金 其意向必在午中丁火而合從矣 己巳戊辰運 生金洩火
刑耗有之 丁卯丙寅 木火並旺 剋盡辛金 經營發財巨萬

乙	壬	辛	己		
巳	午	未	巳		
乙	丙	丁	戊	己	庚
丑	寅	卯	辰	巳	午

이 사주는 지지가 남쪽이고 월령이니 지지가 왕한 것이 극에 도달하고 있다.
화의 불길이 거세어 토가 건조하다보니 부숴지는 금이 수를 도와주지 못하여
천간이 쇠약한 것이 극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간의 마음이 신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이 일지의 오화에 들어있는 정화에게 있어 그와 합하여 따르는 형상이다.

기사와 무진 운에서 금을 생하고 화를 설기하니 상사(喪事)와 재산의 파산이 있었으나,
정묘와 병인 운에서 목화가 모두 왕성해서 신금을 극하여 버리니 사업을 경영해서 수많은 재산을 벌었다.

제1장 간지총론

此造支類北方 地旺極矣 天干火虛 無木生扶 又有溼土晦火 天衰極矣
人皆論其殺重身輕 取火幫身敵殺 戊寅歲 金絕火生 又合去亥水 必有大凶
果卒季夏 此地支官星乘旺 又類官方 天干無印 己土洩丙 未足幫身 此爲天地合而從官也
甲戌運生火剋水 刑喪破耗 家業已盡 癸酉壬申剋盡丙火 助起財官 獲利五萬
未運丙子年遭回祿 破去二萬 人皆取其火土幫身 以午未運爲美 殊不知此劫奪財 反致大凶

庚	丁	丙	己		
子	亥	子	丑		
庚	辛	壬	癸	甲	乙
午	未	申	酉	戌	亥

이 사주는 지지가 모두 북쪽이라 왕하기가 극에 도달하고 있다.
천간의 화는 허약한데 그것을 생하여 주는 목이 없고 또 습토가 있어서 화를 설기하기조차 하니 천간은 쇠약하기가 극에 도달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이 사주는 살이 왕하고 일주가 쇠약하니 화를 용신으로 삼아 일주를 도와주고 살을 극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무인 세운에 금이 절지에 해당하고 화가 생을 받고 또 해수와 합하니 대흥하여 늦은 여름인 미월에 사망하였다.
이 사주는 지지의 관성이 이미 왕한데다가 또 관살의 방향을 이루고 있는데, 천간에 인성은 없고 기토는 병화의 기운을 설하여 일주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천간과 지지가 합하여 관성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갑술운에 화를 생하고 수를 극하니 상사가 있었고 재산이 손실되어 가산이 모두 파산되었다가 임신과 계유운에서 병화를 완전히 극해버리고 관성과 재성을 도와주니 오만의 이익이 있었으나 미토운 병자년에 화재를 입어 이만의 손실을 보았다.
사람들은 모두 화토를 용신으로 삼아 일주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회와 미토의 남쪽운에서는 좋아야 할 것인데 사실은 비겁이 재성을 박탈하다보니 도리어 대흥으로 된 것이다.

【原文】 地生天者 天衰怕冲

지지가 천간을 생하는데 천간이 쇠약하면 충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原注】 如丙寅戊寅丁酉壬申癸卯己酉皆長生日主

甲子乙亥丙寅丁卯己巳皆自生日主 如主衰逢冲 則根拔而禍更甚

예를 들어 병인, 무인, 정유, 임신, 계묘, 기유는 일지가 모두 일주의 장생이다.

갑자, 을해, 병인, 정묘, 기사는 일지가 모두 일간을 생하여 준다.

그런데 만약 일주가 쇠약하고 충을 받게 되면 뿌리가 뽑히게 되니 재화가 더욱 심하다.

임철초 증주

地生天者 如甲子丙寅丁卯己巳戊午壬申癸酉乙亥庚辰辛丑是也
日主生于不得令之月 柱中又少幫扶 用其身印 沖則根拔 生機絕矣 爲禍最重
若日主得時當令 或年時皆逢祿旺 或天干比劫重疊 或官星衰弱 反忌印綬之洩
則不怕沖破矣 總之看日主之氣勢 旺相者喜沖 休囚者怕沖 雖以日主而論 歲運沖亦然

제1강 간지총론

지지에서 천간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갑자, 병인, 정묘, 기사, 무오, 임신, 계유, 을해, 경진, 신축 등을 말한다.

일주가 월령을 얻지 못하고 또 사주 가운데에서 도와주는 것이 부족하다면 인성(印星)을 용신으로 하는데, 그것을 충하게 된다면 뿌리가 뽑혀버려 생기가 끊기는 것과 같으니 재화가 가장 크다.

만약 일주가 월령을 얻었거나 혹은 년지와 시지에 인성이나 비겁이 있거나 혹은 천간에 비겁이 많거나 혹은 관성이 쇠약한데 도리어 인성이 설기를 하고 있다던가하면 이때에는 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일주의 기세를 살펴서 왕상(旺相)하면 충하는 것을 좋아하고

휴수(休囚)하면 충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여기에서는 일주를 기준으로 이렇게 논하지만 세운과 행운에서 들어오는 충도 이와 같다

제1강 간지총론

此坐下印綬 生于季春 印氣有餘 又年逢甲寅 則太過矣 土雖當令 而木更堅
喜其寅申逢沖 財星得用 第嫌比肩盖頭 沖之無力 早年運走南方 起倒異常
至壬申 癸酉二十年 幫沖寅木 剋去比肩 創業興家 此爲棄印就財也

丙	丙	戊	甲
申	寅	辰	寅
甲	癸	壬	辛
戊	酉	申	未
			庚 己
			午 巳

일주가 인수위에 앉아 늦봄에 태어나 아직은 인수의 기가 남아있는데
년이 또 갑인이다 보니 오히려 인수의 기가 넘치고 있다.

토가 비록 월령이라고는 하지만 목이 더욱 단단하니 인신(寅申)이 충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재성을 용신으로 삼는데 좋지 않은 것이라면

그 위에 비견이 덮혀 있어 충하는 것이 힘이 없다는 것이다.

초년운이 남쪽으로 들어서서는 고생이 극심했는데 임신과 계유운 20년간

인목을 충하는 것을 도와주고 비견을 제거하니 창업하여 가문이 흥성해졌다.

이것을 이른바 기인취재격(棄印就財格 : 인성이 많으면 재성을 용신으로 한다)이라고 하는 것이다.

제1장 간지총론

此坐下印綬 亦在季春 印綬未嘗無餘 年干壬煞生印有情 不足畏也 所嫌者
兩申沖寅 甲木之根拔 還喜壬水洩金生木 運走丙午劫去申財 入學補廩登科
丁未合去壬水 三走春闈不捷 戊申剋去壬水 三沖寅木 而死於途 此造之壬水
乃甲木之元神 斷不可傷 壬水受傷 甲木必孤 凡獨殺用印者 最忌制殺也

丙	丙	甲	壬
申	寅	辰	申
庚	己	戊	丁
丙	乙	戊	酉
申	未	午	巳

이 사주 역시 일지가 인수이고 늦은 봄에 태어났으니 인성인 목은 기운이 남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년간에 있는 편관 임수가 다시 인성을 생조해서 유정하니 두려워 할 것 없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것이라면 두 개의 신금이 인목을 충하고 있으니 그로 인해서 갑목의 뿌리가
뽑혀 버리게 되는 것인데 그래도 반갑다고 할 것은 임수가 금을 설기해서 목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다.

대운이 병오에 들어서서 신금 재성을 겁탈해 버리니 학교에 들어가 보름(補廩)생이 되었으나

정미운에는 임수를 합하여 버리니 세 번이나 봄에 과거시험을 보았으나 모두 낙방하였다.

무신운에는 다시 임수를 극하고 더구나 세 개의 신금이 인목을 충하다 보니 길에서 죽고 말았다.

이 사주에서 임수는 갑목의 원신으로 절대로 그것이 손상되어서는 안 되는데, 임수가 손상을 받게 되면
갑목은 반드시 외롭게 된다. 무릇 살이 하나 있고 인성이 용신일 때는 살을 극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다.

【原文】 甲申戊寅 眞爲殺印相生 庚寅癸丑 也坐兩神興旺

갑신과 무인은 참으로 殺과 印星이 相生하는 것이고,
무인과 계축 역시 앉아 있는 두 신이 왕성하다.

【原注】 兩神者 殺印也 庚金見寅中火土 卻多甲木 而以財論 癸見丑中土金
卻多癸水則幫身 不如甲見申中壬水庚金 戊見寅中甲木丙火爲眞也

양신이라는 것은 살과 인성을 말한다.

경금이 인목 지장간에 있는 화토를 만났는데 갑목이 더 있는 이것은 재성으로 논한다.

계수가 축토 지장간에 있는 토금을 만났는데 계수가 더 있으니 즉 계수를 도와준다.

그러나 이것은 갑목이 신금속의 임수와 경금을 만난 것과
무토가 인목속의 갑목과 병화를 만난 것에 비하면 진짜가 되지 못한다.

임철초 증주

支坐殺印 非止此四日 如乙丑辛未壬戌之類 亦是兩神也 癸丑多比肩 戊寅豈無比肩乎
庚寅多財星 甲申豈無財星乎 非惟庚寅癸丑不眞 卽甲申戊寅 亦難作據 若只以日主一字論格
則年月時中 作何安頓理會耶 不過將此數日爲題 用殺則扶之 不用則抑之 須觀四柱氣勢
日主衰旺之別 如身強殺淺 則以財星滋殺身殺兩停 則以食神制殺 殺强身弱 則以印綬化殺
論局中殺重身輕者 非貧卽夭 制殺太過者 雖學無成 論行運殺旺 復行殺地者
立見凶災 制殺再行制卿者 必遭窮乏 書云 格格推詳 以殺爲重
又云 有殺只論殺 無殺方論用 殺其可忽乎

제1강 간지총론

지지에 살과 인성이 있는 것에는 다만 이 네 개의 일(日)만 그런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을축, 신미, 임술 등도 역시 앉은자리에 양신이 있다.

계축에는 비견이 더 많다고 하는데 무인에는 어찌 비견이 없다고 하겠는가?

경인에는 재성이 더 많다고 하는데 갑신에는 어찌 재성이 더 없다고 하겠는가?

다만 경인과 계축만이 진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갑신과 무인 역시 진짜라고 하기 어렵다.

만약 일주로만 격을 논한다고 하면 년월시에 있는 다른 간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한다 말인가?

그러니 이것은 다만 몇 일(日)만을 놓고 논할 때 살이 용신일 때는 부축하여 주고

용신이 아닐 때는 억제하되 반드시 사주의 기세와 그리고 일주의 쇠왕을 잘 보고 분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주가 왕하고 살이 쇠약하다면 재성으로 살을 생하여 주고,
일주와 살이 모두 왕하다면 식신으로 살을 극하여 주고,
살이 왕하고 일주가 쇠약하다면 인성으로 살을 화해 주어야 한다.

사주에 살이 왕하고 일주가 쇠약하면 빈곤하지 않으면 요절하게 되고,
또 살을 억제하는 것이 너무 왕하면 공부를 해도 성공 못하고,
행운에서도 역시 살이 왕한데 또 살이 왕한 운을 만나게 되면 바로 흉한 재난을 만나게 되고,
살을 극하는데 또 살을 극하는 행운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빈곤하게 된다.

책에서 말하기를 사주와 사주를 볼 때는 살을 위주로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 살이 있으면 살로 논하고, 살이 없으면 비로소 용신으로 논한다고 하였으니
살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제1강 간지총론

甲申日元 生于八月 官殺當權 喜其午火緊制酉金
子水化其申金 所謂去官留殺 殺印相生 木凋金旺
印星爲用 甲第聯登 由郎署出爲觀察 從臬憲而轉封疆

甲	甲	己	壬	
子	申	酉	午	
乙	甲	癸	壬	辛
卯	寅	丑	子	亥
				庚
				戌

갑신일주가 팔월에 태어났는데 관살이 월령이고
오화가 옆에 붙어서 유금을 극하고 자수가 신금을 설기하니 좋다.
이것이 이른바 관(官)을 보내고 살(殺)을 머물러 있게 한다는 격에 해당하는데,
살과 인성이 상생하고 목은 시들고 금이 왕하니 인성을 용신으로 삼게 된다.
그리하여 과거시험에 연달아 합격하여
벼슬이 랑서(郎署)에서 관찰사로 되었다가 열헌(臬憲)을 거쳐 봉강(封疆)에 올랐다.

제1강 간지총론

此與前造只換一辰字 以俗論之 前則制官留殺 此則合官留殺 功名仕路
無所高下 殊不知有天淵之隔 夫制者剋而去之 合者有去有不去也 如以辰土爲財
則化金而助殺 以西金爲官 仍化金而黨殺 由此觀之 清中帶濁 且以財爲病者
不但功名蹉跎 而且刑耗難辭 惟亥運逢生 可獲一衿 壬子如逢木年 秋闈有望
癸丑合去子印 一阻雲程 有凶無吉 甲寅運被申沖破 壽元有礙矣

甲	甲	己	壬		
子	申	酉	辰		
乙	甲	癸	壬	辛	庚
卯	寅	丑	子	亥	戌

이 사주는 앞 사주에서 다만 년지의 진(辰)자만 바뀌었을 뿐인데 일반사람들의 논설에 의하며 ‘앞 사주는 관을 제어하고 살을 머물게 했고, 이 사주는 관과 합하여 살을 머물게 했으니 공명과 벼슬길에 이 두 사람은 별 차이가 없어야 한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무릇 제(制)한다는 것은 극하여 제거를 하는 것이나 합하는 것은 합해서 없어져 버릴 때가 있고 없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진토 재성을 보면 금으로 화해서 살을 도와주고, 유금 관성을 보면 여전히 금으로 화해서 살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맑은 가운데 탁한 것이 있어 재성이 병으로 되니
공명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어려움을 면하기 어려웠다.
오직 해수운에서 생을 받아 옷 한 벌 얻어 입을 수 있었고, 임자대운 목년에는 가을 과거시험에 희망이 있었고,
계축운에는 자수 인성을 합하여 제거하니 앞길이 막히고 흉한 일만 있고 좋은 일이 없었다.
갑인운에는 신금이 충하는 바람에 수명에 장애가 있게 되었다.

【原文】 上下貴乎情協

위 아래가 서로 귀한 것은 정이 있고 서로 협조하는 것이다.

【原注】 天干地支雖非相生 宜有情而不反背

천간과 지지가 비록 상생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유정하여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한다.

임철초 증주

上下情協者 互相衛護 干支不反背者也 如官衰傷旺財星得局 官旺財多
比劫得局 殺重用印 忌財者 財臨劫地 身強殺淺 喜財者 財坐食鄉 財輕劫重
有官而官星制劫 無官而食傷化劫 皆謂有情 如官衰遇傷
財星不現 官旺無印 財星得局 殺重用印 忌財者 財坐食位 身旺煞輕 喜財者 財坐劫地
財輕劫重 無食傷而官失令 有食傷而印當權 皆爲不協

위아래가 정이 있고 서로 협조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고 천간과 지지가 서로 상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관성은 쇠약하고 상관이 왕하여 재성이 국(局)을 이루고 있거나,

관성이 왕한데 재성도 많은 경우에 비겁이 국을 이루고 있거나,

관살이 많아서 인성을 용신으로 할 경우에는 재성을 싫어하는데 재성이 비겁에 앉아 있거나,

일주가 왕하고 관살이 쇠약하면 재성을 기뻐하는데 이 재성이 식신에 앉아 있거나,

재성이 쇠약하고 비겁이 왕한데 관성이 있거나 또는 관성이 비겁을 억제하거나,

관성이 없는데 식신이나 상관이 비겁을 설기한다거나 하는 이 모든 것은 모두 유정한 것이다.

또 예를 들어 관성이 쇠약하여 상관을 만났지만 재성이 없거나,
관성은 왕하고 인성이 없는데 재성이 국을 이루고 있거나,
관살이 많아서 인성을 용신으로 하면 재성을 싫어하는데 이때 재성이 식신위에 앉아 있거나,
일주가 왕하고 관살이 쇠약하면 재성을 좋아하는데 이 재성이 겁재위에 앉아 있거나,
재성이 쇠약하고 겁재가 왕한데 식신이나 상관도 없고 관살이 월령에 있지 않거나,
또는 식신이나 상관이 있기는 해도 인성이 월령에 임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다 서로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제1강 간지총론

此日主兩坐長生 年支又逢祿旺 足以用官 癸水官星被己土貼身一傷
喜得官臨財位 尤妙巳酉拱金 則己土之氣已洩 而官星之根固矣
所以一生不遭凶險 名利兩全也

庚	丙	癸	己		
寅	寅	酉	巳		
丁	戊	己	庚	辛	壬
卯	辰	巳	午	未	申

이 사주는 일주가 일과 시의 지지에 장생인 인성이 있고
년지에 록왕인 비견이 있으니 정관(正官)을 용신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정관 계수를 년간의 기토가 바로 옆에 붙어서 극하고 있지만
그래도 관성이 재성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또한 더욱 묘한 것은 사유(巳酉)가 합을 하여 금으로 되니
기토의 기운이 도리어 설기를 당했고 관성의 뿌리는 다시 더욱 견고해졌다.
그러므로 일생동안 흉한 위험을 당하지 않고 명예와 재산이 다 좋았다.

제1강 간지총론

此官殺乘旺 原可畏也 然喜午時 生食制煞 時干透甲 生火洩水 旺殺半化爲印
衰木兩遇長生 賴此木根愈固 上下情協 不誣也 自手成家發財數萬

甲	丙	癸	癸		
午	辰	亥	亥		
丁	戊	己	庚	辛	壬
巳	午	未	申	酉	戌

이 사주는 관살이 왕하여 원래는 두렵지만 태어난 시간이 오시이니 식신을 생하여 관살을 억제하고,
시간의 갑목은 투출되어 화를 생하고 수를 설기하니
왕한 살이 다시 반은 인성으로 화하고 쇠약한 목은 두 장생을 만나고 있다.
그러므로 목은 이를 의지해서 뿌리가 더욱 견고해져
‘위아래가 정이 있고 협조하여 주고 있다’라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수성가하여 수만에 달하는 재산을 벌었다.

제1강 간지총론

專祿日主 時支子水生之 年干甲木 亦坐祿旺 用庚金則火旺無土 坐于火地
用丙火則子沖去其旺支 卽或用火 亦無安頓之運
所以一敗如灰 至乙亥運 水木齊來 竟爲乞丐

丙	乙	庚	甲		
子	卯	午	寅		
丙	乙	甲	癸	壬	辛
子	亥	戌	酉	申	未

일주가 비견 위에 있고 시지에 있는 자수가 생하여 주며

년간의 갑목 역시 녹왕인 인목 위에 있어 경금을 용신으로 하려니 화는 왕한테 토가 없고

또 경금이 화에 앞아 있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그래서 병화를 용신으로 삼으려니 자오가 충하여 왕한 뿌리가 날아가 버린다.

그래도 혹 화를 용신으로 삼지만 운의 배합이 잘 되어 있지 않으니 일생이 한번 패해서 재처럼 되었고,

을해운에 수목이 함께 들어오는 바람에 결국은 거지가 되고 말았다.

제1강 간지총론

此己土之財 通根在丑 得祿于午 似乎身財並旺 不知己土之財 比肩奪去
丑土之財 卯木剋破 午火食神 亥水剋之 壬水蓋之 無從引化 所謂上下無情也
初逢戊寅丁丑 財逢生助 遺業頗豐 一交丙子 沖去午火 一敗而盡 乙亥運
妻子俱賣 削髮爲僧 又不守清規 凍餓而死 合此兩造觀之
則上下之情協與不協 當貴貧賤 遂判天淵 卽于此證驗焉

壬	乙	己	乙		
午	亥	卯	丑		
癸	甲	乙	丙	丁	戊
酉	戌	亥	子	丑	寅

이 사주에서 기토 재성이 축토에 통근하고 일지와 오화를 얻어 보기에는 일주와 재성이 모두 왕한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토 재성은 비견에게 겁탈을 당하고 있고, 축토 재성은 묘목이 극하여 파손시키고 있으며,
오화 식신은 해수가 극하고 임수도 위에서 덮고 있으니 화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른바 ‘위아래가 무정하다고’하는 것이다.

초년운 무인과 정축에서는 재성이 도움을 받아 조상이 남겨준 유산이 넉넉했으나
병자운에 들어서자 오화를 충해 버리니 단번에 완전히 모두 파산하였고, 을해운에서는 처와 자식을 모두 팔아먹고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갔는데, 또한 절에서도 계율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굶어 일어죽고 말았다.

위 두 사주를 볼 때 위아래가 정이 있고 협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그 부귀빈천이 천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이 예가 바로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原文】 左右貴乎同志

좌우에서 귀한 것은 동지다.

【原注】 上下左右 雖不全一氣之物 須生化不錯

상하좌우가 모두 하나의 기로 되지 않아도 반드시 생화(生化)해야 좋다.

유정하여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한다.

임철초 증주

左右同志者 制化得宜 左右生扶 不雜亂者也 如殺旺身弱 有羊刃合之 或印綬化之
身旺殺弱 有財星生之 或官星助之 身殺兩旺 有食神制之 或傷官敵之

此謂同志 若身弱而殺有財滋 則財爲累矣 身旺而劫將官合 則官已忘矣

總之 日主所喜之神 必要貼身透露 喜殺而殺與財親 忌殺而煞逢食制 喜印而印居官後
忌印而印讓財先 喜財而遇食傷 忌財而遭比劫 日主所喜之神 得閑神相助 不爭不妒
所忌之神 被閑神制伏 不肆不逞 此謂同志 宜細究之

좌우가 동지라는 하는 것은 극하고 화하는 것이 적당하고,
좌우가 서로 생하고 도와주며 어지럽게 섞여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관살이 왕하고 일주는 쇠약한데 겁재가 관살과 합을 하거나,
인성이 있어서 관살을 생화(生化)하거나,
일주는 왕한데 관살이 쇠약할 때 재성이 있어 생조해 주거나 혹은 관성이 도와주거나,
일주와 관살이 모두 왕한데 식신이 있어서 관살을 억제한다거나,
혹은 상관으로 억제한다거나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동지라고 한다.
그러나 만약 일주가 쇠약한데 재성이 관살을 도와주고 있다면 이때는 재성이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일주가 왕한데 겁재가 관성과 합이라도 하고 있다면 이때는 관이 역할을 잇는 것이다.

어쨌든 한마디로 일주의 희용신은 반드시 일주 옆에 붙어 투출이 되어야 하고,
관살을 기뻐할 때는 관살이 재성과 친하고 있다든가, 관살을 꺼릴 때에는 관살을 극하는 식신이 있다든가,
인성을 기뻐할 때에는 인성 옆에 관살이 있다든가, 인성을 꺼릴 때에는 재성이 인성 앞에 있다든가,
재성을 기뻐할 때는 식신과 상관이 있다든가, 재성을 꺼릴 때에는 비겁이 있다든가,

일주의 희신이 한신의 도움을 받고 다투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다든가,
기신은 한신의 억제를 받고 미쳐서 날뛰지 않는다든가
하면 이 모든 것을 동지라고 하는데 자세히 연구해야 한다.

제1강 간지총론

此丙火之殺雖旺 壬水之根亦固 日主有比肩之助 溼土之生
謂身殺兩停 用壬制殺 天干之同志者 地支之同志者 辰土也
一制一化 可謂有情 運至金水之鄉 仕途顯赫 位至封疆

庚	庚	丙	壬		
辰	午	午	申		
壬	辛	庚	己	戊	丁
子	亥	戌	酉	申	未

이 사주는 병화 관살이 비록 왕하기는 하지만 임수의 뿌리도 역시 견고하다.
일주를 비견이 도와주고 또 습토가 생하여 주니 일주와 관살이 모두 왕하여 임수를 용신으로 삼아
병화를 억제하니 이것은 천간에서의 동지가 되고 지지에서의 동지는 진토가 된다.
하나는 억제하고 하나는 유통하여 주니 이른바 유통하여
운이 금수로 흘러갈 적에 벼슬길이 크게 빛났으며 벼슬은 봉강(封疆)까지 올랐다.

제1강 간지총론

此造與前合觀 大同小異 況乎日坐祿旺 壬水亦緊制殺 何彼則名利雙收
此則終身不發 蓋彼則壬水逢申之生地 制殺有權 此則壬水坐午之絕地
敵殺無力 彼則時干比劫幫身 又可生水 此則時上梟神剋水
而不能生食 所謂左右不能同志者也

戊	庚	丙	壬		
寅	申	午	午		
壬	辛	庚	己	戊	丁
子	亥	戌	酉	申	未

이 사주를 앞 사주와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를 바 없다.

여기서는 일지가 비견이고 임수 역시 바짝 붙어서 관살을 억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사람은 명예와 재산을 다 얻었는데, 이 사람은 어찌 일생동안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었는가!

왜냐하면 앞의 사주는 임수가 신금의 도움을 받아 관살을 억제할 수 있었으나 이 사주는 임수가 오화의 절지에 앉게 되는 바람에 관살을 억제할 힘이 없는 것이고, 또 앞의 사주는 시간에 비견이 도와주고 있으나 이 사주는 시간에 편인이 수를 극하고 식신을 생하여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른바 ‘좌우가 동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原文】

始其所始 終其所終 福壽富貴 永乎無窮

시작이 될 곳에서 시작하고 끝이 날 곳에서 끝이 난다면
富와 壽命과 富와 貴가 모두 영원하게 다함이 없으리라.

임철초 증주

시작과 끝의 이치는 간지가 서로서로 유통되어서 도와주고 변화하는 과정이 쉬없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반드시 바짝 붙어서 구슬을 펜 것처럼 오행이 갖춰져서 연결되어야 하니
즉 결핍이 있다고 하더라도 혹 合化의 情이 있어서 서로 보호를 해준다면 순수하여 볼 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가운 것은 생을 만나거나 득지를 해야 하고,
꺼리는 것은 극을 받거나 뿌리가 없어야 할 것이며 한신과 결합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혹은 꺼리는 것이 合化하여 좋은 성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사주의 간지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니
비록 상관이나 편인이나 겁재나 양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사주의 용신을 돕게 되니 희용신이 유정하고 일주가 득기하면 부귀수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己 丁 甲 壬
酉 亥 辰 寅

壬 辛 庚 己 戊 丁 丙 乙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년간의 임수로 시작하여 일지 해수에서 끝났다.

관이 인을 생하고 인은 다시 일주를 생하고 식신은 수기를 발하니 재성이 식상의 보호를 받는다.

관은 다시 재성의 생조를 받으니 비록 상관이 당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수가 제어를 하여 유정하다.

년월이 서로 등지지 않고 일시도 질투하거나 거리낌이 없으니 시종을 얻었다고 하겠다.

그래서 귀함이 극품에 이르렀고 재물로써도 수백억에 이르렀으며

자손도 줄줄이 이어졌고 수명은 팔순을 넘었다.

乙 癸 庚 戊
卯 亥 申 戌

戊 丁 丙 乙 甲 癸 壬 辛
辰 卯 寅 丑 子 亥 戌 酉

이 사주는 土가 金을 생하고 金은 水를 생하고 水는 木을 생하고 있으니
천간과 지지가 같이 흘러 서로 도와주고 있다.

싸움도 질투의 바람도 없이 戌토의 재성으로 가운이 돌아가서
官도 淸하고 寅도 바르며 식신은 秀氣를 洩하고 生을 만나고 있다.

향방 출신으로 벼슬이 고위직에 이르렀고 1처와 2첩을 거느리고 아들을 13명이나 두었다.
자식들도 모두 벼슬에 올라 끊임이 없었으며 수백억대의 부자였고 수명은 구십이 넘어 살았다.

辛 己 丙 甲
未 巳 寅 子

甲 癸 壬 辛 庚 己 戊 丁
戌 酉 申 未 午 巳 辰 卯

이 사주의 천간이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이고 지지에는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이다.

또한 모든 지지는 천간을 도와주고 있는 구조이다.

지지를 따라가 보면 년지의 子수로 시작을 해서 水生木하고 시간의 庚금에서 기가 머무르고

천간으로 따라가 보면 년지의 子수를 甲목의 뿌리로 시작해서 역시 시간의 辛금에서 멈춘다.

그리고 천지가 함께 흐름을 타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시작할 곳에서 시작해서 멈출 곳에서 멈추는 것'에 해당한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이 계속 올라가서 극품에 이르게 되었다.

부부가 서로 공경하였고 자손이 번창하고 수명은 구십을 넘었다.